

➤ 주말마다 ‘교통지옥’... 대부도 교통정체 해법은 무엇인가?

어디까지 확장되고 있나 - 대부도 도로 신설 및 확장 계획

상: “진입도로가 너무 좁다”...대부도 도로 현황 긴급 진단
중: 어디까지 확장되고 있나... 대부도 도로 신설 및 확장 계획
하: 해결책은 무엇인가... 대부도 교통정체 해법 제시

대부도저널이 대부도지역 교통정체 현상을 진단하고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앞으로 3회에 걸쳐 기획 기사를 싣는다. 오늘은 그 두 번째로 ‘중: 어디까지 확장되고 있나 - 대부도 도로 신설 및 확장 계획’편을 싣는다.

현재 대부도에서 확·포장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곳부터 설명하고 들어가 보자.

먼저 대부항급로 확·포장 공사를 들 수 있다. 2차선인 이곳을 4차선으로 확장하는 공사다.

북동저수지입구~동주염전 입구(약 3km구간) 구간의 공사가 토지 매입단계에 있다. 폭 14.5~20m(왕복 4차선 구간)로 공사 준공은 2027이다. 나머지 구간(동주염전~탄도) 7.5km 도 오는 2030년까지 준공 목표다.

대부동 일반주거지역 주 진입로 개

설공사도 시작하고 있다. △중현마을 657m 폭 10m(2차선 도로) △당전마을 695m 폭 10m(2차선 도로) △남사리 마을 83m 폭 10m(2차선 도로) 사업기간은 2027년 말까지다.

대부동 소로2~대부106호선 개설 공사는 마무리 단계다. 단원구 대부북동 1846~27번지 일원(대부도관광호텔 마리나 옆, 어반아일랜드 앞)이다. 도로개설 확장 60m, 폭 3m, 준공은 올 10월이다.

대부북동 상동교차로 개선공사도 마무리 되고 있다. 단원구 대부북동 514~2번지 일원(대부도서관~상동교차로 우회로 1개차선 확장/탄도방향)이다. 도로개설 확장 60m, 폭 3m로 이 공사 역시 올 10월까지 마무리한다.

대선로(북동삼거리 일원) 확·포장 공사도 마무리되고 있다. 단원구 대부북동 1837~76번지 일원(파리바게트 앞~대부종합목재)으로 연장

415m, 폭20m, 4차로 확장공사다. 올 12월 완공목표다.

장골1길 연결도로 조성공사는 2027년 말까지 완공하는 계획이다. 단원구 대부북동 598~4~대부동동 1493~7번지 일원(현대오일뱅크 정진오일뱅크~벤엘실버요양원)이다. 연장 441m, 폭 10.5m(왕복2차로 한 방향은 인도설치 2m)다.

끝으로 대선로 병목구간 개선사업이다. 서남부 연결도로 접속부~장골교차로(더해븐CC입구~금수레건강밥상 앞)구간으로 양방향 1개차로 확장(연장 487m, 폭4.7m)이다. 준공 목표는 올 12월이다.

여기에 투입되는 총 예산은 1,288억5천여 만원에 이른다. 결코 적은 예산은 아니다. 그러나 효과는 대부도 전체 교통체증을 해결하는 데는 미미하다. 약간의 숨통만 트이는데 일조할 뿐이다.

관광지는 주말에 교통이 막혀야 관광지라고 하지만 주민들은 말한다. “대부도는 주말에 막혀도 너무 막힌다.”라고.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안산시, 생활숙박시설 합법 사용 유도



안산시가 생활숙박시설의 불법 사용을 방지하고 합법 운영을 유도하기 위해 맞춤형 지원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사진은 하늘에서 바라 본 반달섬의 모습이다. <사진제공=안산시 홍보담당관>
정희재 기자 heejae0919@hanmail.net

반달섬, 시 주도로 컨설팅 제공 등 적극 행정 돌입
용도변경 신청·숙박업 유도

안산시는 생활숙박시설(이하 ‘생숙’)의 불법 사용을 방지하고 합법 운영을 유도하기 위해 맞춤형 지원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1월 생활숙박시설 문제 해결을 위해 숙박업 신고 및 용도변경을 지원하는 특별조직 ‘생숙지원TF팀’을 도시주택국 건축디자인과 산하에 설치한 뒤 지속 운영하고 있다.

안산시 ‘생숙지원TF팀’은 숙박업 신고·용도변경 신청 절차와 법적 의무를 안내하기 위해 5회에 걸쳐 생숙 소유주 및 관리단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용도변경 가능 여부 사전 검토를 위한 컨설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합법적인 운영을 유도하고

자 ▲뉴스카드 제작 ▲안산시 공식 SNS(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카카오톡 등 6개 매체) 업로드 ▲시청 누리집 안내문 게시 등 홍보활동도 적극 진행하고 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0월 16일 ‘생숙 합법사용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그 후속 조치로 이달 8일 소방청과 함께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을 위한 ‘생숙 복도폭 완화 가이드라인’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했다.

안산시는 이러한 지원방안에 발맞춰 반달섬(단원구 성곡동)에 소재한 생숙 ‘힐스테이트 시화호 라군인테라스’의 용도변경(2,493㎡)을 지난 5월 26일 자로 사용승인을 완료했으며, 이는 전국 최대 규모의 용도변경 사례로도 주목받았다.

한편, 지원방안에 따르면 오는 9월 30일까지 숙박업 신고 및 용도변경을 신청할 경우, 오는 2027년 말까지

이행강제금 부과가 유예된다.

시는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신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오는 10월부터 용도변경 신청이나 숙박업으로 미신고된 생숙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위반 사항 적발 시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민근 시장은 “생활숙박시설 문제는 단순히 행정적 관리 차원을 넘어 시민들의 안전과 생활환경, 나아가 도시의 미래와도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시는 생활숙박시설 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소유주와 시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합법적 운영 환경을 조성해 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국토부와 긴밀히 협력해 적극행정이 전국적인 모범사례로 자리매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희재 기자 heejae0919@hanmail.net

대부바다향기테마파크 내 파크골프장 양성화 가능 할 듯

박해철 의원, 법개정 추진
체육시설도 포함되도록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생활체육 관련)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박해철(민주당, 안산시병) 의원으로 부터 반가운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본지 2025년 5월 19일자 1면 보도>

법 개정이 이뤄지면 최근 붙어 있고 있는 대부바다향기테마파크내

파크골프장이 양성화 될 수 있기 때문이다.

19일 박해철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농어촌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지원 취지에 동의하며, 생활체육 문구 추가에 대한 이견이 없다고 밝혀왔다는 것이다.

또 대부바다향기테마파크를 관리하고 있는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축산부) 역시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힘을 받고 있다.

현행 법은 ‘농어촌의 문화예술 및 문화복지시설’의 경우는 가능하도록 조항에 들어있다.

하지만 체육시설의 경우는 법 조항에 없다는 이유로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논란이 일어왔다.

이번에 제33조(농어촌의 문화예술 및 생활체육 진흥)에서 생활체육이 추가되고 제34조(농어촌 문화복지 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의 설치) 에서도 생활체육시설이 추가됐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용방건설산업(주)

- | | |
|-----------------|----------------|
| ■ 토목사업 | ■ 지반조성 포장 공사업 |
| ■ 연약지반 공법 시공업 | ■ 중장비 매매 및 임대업 |
| ■ 파일 항타 공사업 | ■ 철근 콘크리트 공사업 |
| ■ 비계 구조물 해체 공사업 | ■ 상하수도 설비 공사업 |

대표 서승대 M. 010.2605.9877

안산시 단원구 구봉길 35 2층



안산시, 체육관·운동장·주차장 주민 개방... 23개교와 신규 협약

관내 23개 학교와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 실무 협약 체결

안산시는 25일 시청 제1회의실에서 관내 23개 학교와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를 위한 실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협약식은 이민근 시장을 비롯해 이광종 안산시체육회장, 23개 학교의 교장 및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행사는 ▲경과보고 ▲학교시설 개방 지원사업 설명 ▲협약 내용 공유 ▲실무협약서 서명 및 교환 순으로 진행됐다.

협약에 따라 안산시는 체육관, 운동장, 유류교실, 야간주차장 등 학교시설을 지역주민에게 개방하는 학교에 대해 ▲개방 시간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 ▲공공운영비 지원 ▲이용자 사고 손해배상 공제 가입 ▲관리 인력 지원 ▲교육경비 지원 시 가점 부여 ▲시설 유지보수비 우선 지원 등을



이민근 시장(가운데줄 왼쪽 다섯번째)이 관내 23개 학교와의 학교시설개방 활성화를 위한 실무 협약을 체결하고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윤성용 기자 jinsan1002@hanmail.net

제공한다. 안산시체육회는 ▲체육회 소속 동호회와 개방학교 간 1:1 매칭 관리 ▲시설 관리자 지정 및 관리 등을 통해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에 협력할 예정이다.

안산시는 지난 2023년 9월 10개교를 시작으로 2024년 11개교, 올해 31

개교와 실무 협약을 체결했으며, 안산교육지원청과의 현장 컨설팅 등에 기반해 학교시설 개방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이민근 시장은 “지역과 학교가 상생하는 안산을 만들어가는 여정에 기여이 동참해 주신 교장선생님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행정·재정적 지원을 통해 지역과 학교 간 협력체계를 공고히 구축하고, 관내 모든 학교로 학교시설 개방을 확대해 주민의 여가·편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성용 기자 jinsan1002@hanmail.net

안산의 지역봉사단체 ‘따모’ 이번달도 어김없이 봉사나서

화정천 환경정화로 8월 정기 자원봉사 깨끗한 하천 환경 조성에 앞장

안산따뜻한모임봉사단(단장 김연국, 이하 따모)은 8월 23일, 안산 화정천 주변 환경정화 봉사활동을 가졌다.

이날 활동에는 ‘따모’ 소속 신규 및 기존 회원 30여 명이 참여했으며, 신규 봉사자들을 위한 안산자원봉사센터교육도 함께 진행됐다. 안산시의 대표적인 도심 하천인 화정천은 지역주민들의 산책로이자 휴식공간으로 사랑받고 있다.

이번 환경정화 활동은 하천 생태계 보호와 시민들의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의미 있는 실천 활동이다.

‘안산의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의미를 가진 따

모는 3월부터 뜻을 함께하는 안산 시민들이 모여 만들어진 봉사단체다.

매월 정기적인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과 환경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김연국 단장은 “화정천은 안산 시민들의 소중한 휴식공간입니다. 이번 환경정화 활동을 통해 더욱 깨끗하고 아름다운 하천 환경을 만들어 나가고 싶습니다.

작은 실천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든다는 믿음으로 꾸준히 활동하겠습니다.”고 밝혔다.

한편 ‘따모’는 다양한 세대가 함께하는 포용적 지역공동체 문화 조성에 앞장서고 있으며, 현재도 신규 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다.

“따모” 안산따뜻한모임봉사단 홈페이지는 www.ddamo.kr 이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안산따뜻한모임봉사단은 8월 23일, 안산 화정천 주변 환경정화 봉사활동을 가졌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안산시,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률 97.7%... 1차분 9월 12일까지

안산시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률이 지난 25일 기준 97.7%를 기록했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지금 대상자 62만 4,285명 가운데 61만 133명이 신청을 완료해 1,010억 원이 지급됐으며, 아직 신청하지 않은 1만 4,152명에 대한 미지급 금액은 23억 원인 것으로 집계됐다고 설명했다.

소비쿠폰 사용 속도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지난 7월 21일 지급을 시작한 이후 한 달여 만에 지급액 1,010억 원 가운데 765억 원(75.9%)이 사용됐으며, 이는 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 두 번째로 빠른 추세다.

이민근 시장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시민들의 가계 부담을 덜어 주고, 동시에 지역 소상공인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라며 “아직 신청하지 않은 시민들에게는 꼭 기한 내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시민 1인당 15만 원에서 40만 원까지(일반 15만 원, 차상위·한부모가족 30만 원, 기초수급자 40만 원) 지급된다. 지급된 소비쿠폰은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업종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고, 사용 기한은 오는 11월 30일까지다.

이선화 기자 bareuge@hanmail.net

본사방문 감사합니다

- △ K변검가수 이시향
- △ 안산문화재단 김종숙 본부장
- △ 전 대남초등학교 교장 김선철
- △ 청소년자유공간 바지락 책임매니저 오상록



안산시 통합관제센터, 일선에서 시민안전 지켜내

80대 치매노인 발견해 가족의 품으로 무사히 인계 올해 690건 관제 실적 기록

안산시민을 위해 365일 24시간 운영 중인 안산시 통합관제센터가 유기적인 기관 협조로 실종 치매노인을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는 등 일선에서 시민안전을 지키고 있다.

안산도시공사는 시 전역에 설치된 총 8천289대의 CCTV를 통해 올해 들어 지난 7월 말까지 총 690건의 관제 실적을 기록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가운데 지능형 CCTV 3천337대는 ▲배회·폭행 등 이상행동 감지 ▲화재 조기인식 ▲인파 밀집 관리 등 기능을 통해 사전에 위험상황을 감지하고 신속한 대응을 돕고 있다.

이처럼 안산시 통합관제센터는 수천 대의 CCTV를 통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범죄 예방부터 교통흐름 관리, 재난대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민의 일상과 도시 전반의 안전망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린 지난 7월 24일에는 상록구 일동에 거주하는 80대 치매환자 A씨가 지팡이만 들고 집을 나섰다가, 안산도시공사 소속 관제요원이 발견해 무사 귀가했다.

당시 A씨가 오후 7시에 집을 나선 사실을 뒤늦게 인지한 가족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색이 시작됐다. 주택가 밀집지역 특성상 수색이 쉽지 않았으나, 실종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CCTV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다음 날인 7월 25일 오전 2시 47분께 A씨의 주거지에서 약 2km 떨어진 상록구 본오동의 한 길거리에서 발견할 수 있었다.

안산시 통합관제센터, 안산도시공사, 안산상록경찰서 간의 협력체계가 이뤄낸 성과로, A씨를 발견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관제요원은 안산 상록경찰서로부터 감사장을 받기도 했다.

구슬환 안산상록경찰서 서장은 “모니터링을 통해 실종 어르신을 발견해 추가 피해를 예방하는 데 기여한 직



안산시민을 위해 365일 24시간 운영 중인 안산시 통합관제센터가 유기적인 기관 협조로 실종 치매노인을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는 등 일선에서 시민안전을 지키고 있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라고 말했다.

조흥재 안산도시공사 교통지원부장은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스마트 관제 시스템이 또 한 번 빛을 발한 사

례”라며 “앞으로도 안산시와 경찰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통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안산시립국악단, 9월 13일 반달섬과 함께하는 국악 나들이



13일 토요일 오후 4시 30분 세인트폴국제학교 체육관

안산시는 내달 13일 토요일 오후 4시 30분, 반달섬 라군인테라스 내 세인트폴국제학교 체육관에서 안산시립국악단 기획공연 ‘반달섬과 함께하

는 국악 나들이’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무대는 전통국악과 대중가요, 클래식이 조화를 이루는 공연으로, 국악의 매력을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풍성한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번 공연은 안산을 국악으로 표현한 국악 관현악 ‘스포트라이트 안산’으로 시작해 가요 메들리 ‘가을편지’, ‘낭만에 대하여’, ‘리베르 땡고’ 등 친숙한 곡들을 비롯해 대금·가야금 3중주, 해금 협주곡 ‘차르다쉬’, 피리 3중주와 타악 앙상블 등 다채로운 무대로 꾸며진다.

또한 경기민요 이수자인 권두리와 협연해 ‘열 두 달이 다 좋아’, ‘바람’, ‘바람의 노래’를 선보일 예정이며 특히 ‘신랫놀이’를 함께 연주하며 최근 시화호 뱃길이 열린 반달섬의 힘찬 출발을 응원할 예정이다.

반달섬은 최근 주거단지 입주와 상권이 본격적으로 형성되고 있으나 문화예술 인프라는 아직 부족한 상황이다. 안산시는 이번 기획공연을 통해 반달섬 주민들에게 문화적 활기를 불어넣고, 새로운 도시 공간이 문화와 예술이 숨 쉬는 생활문화공간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힘을 보탠다는 계획이다.

이선희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반달섬 시민들이 가까운 생활공간에서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국악의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이번 공연을 준비했다”며 “반달섬 주민뿐만 아니라 많은 시민들이 함께 참여해 국악의 즐거움을 만끽하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윤성용 기자 jinsan1002@hanmail.net

대부도저널 광고문의
☎ 032-880-9994

제298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예결위원장, 한갑수 의원 선출

25일 임시회 1차 예결위서 위원 간 호선 통해 선출

안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5일 제298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갖고, 한갑수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임했다.

이날 의회 제2상임위원회실에서 열린 1차 회의에는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된 한갑수 송바우나 김재국 유재수 이진분 최찬구 선현우 의원이 참석했으며, 회의에서 위원들은 호선을 통해 이갑이 결정했다.

위원들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에는 송바우나 의원을 선출하기도 했다.

이날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을 마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는 9월 3일부터 9월 9일까지 5차례 회의를 열어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다.

앞서 시는 기정예산 보다 10.62% 늘어난 2조 6,422억 1,218만여원 규모의 2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의회에 제출한 바 있다.

한갑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위원들과 합심해 시의 예산 편성에 불요불급한 요소는 없는지 심도 깊게 살피겠다”며 “관계 공무원들도 예결위 활동기간 동안 안전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한갑수 의원이 25일 제298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선출됐다. 김태창 기자

안산시 전)더불어민주당 경기도 의원 뇌물수수 의원 징계 촉구

시의회 국민의힘 의원 일동 27일 시의회 청사 앞에서

19일 더불어민주당 김현 국회의원(안산시,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간사, 사진)은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에서 민주언론시민연합,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와 함께 「방송통

신위원회 정상화와 미디어토론회를 마무리하며 “시정각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을 조속히 통과시킨 뒤, 구체적 제도 설계는 (가칭)미디어발전위원회에서 폭넓게 논의해 더 많은 내용을 담아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안산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8월27일 시의회 청사 앞에서 '경기도의회 뇌물수수 의원 징계 촉구 결의문'을 낭독하고 있다. 김태창 기자

민주당 박해철 의원, 「하천법」 및 「수자원법」 대표발의

남북한 공유하천 지역의 주민안전과 홍수·가뭄 등의 재해예방을 위한 것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해철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시 병·사진)은 22일(금), 하천유지유량 산정과 홍수위험지도·가뭄취약지도·수문조사기본계획 수립시 북한지역에서 유입되는 유량을 반영하도록 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기후변화로 폭우·폭염의 발생이 증가하는 가운데, 임진강·북한강과 같은 남북한 공유하천의 관리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진 상황이지만, 임진강은 2/3가 북한에 위치해있고, 북한강은 유역면적 중 23%가 북한에 속해있어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수자원을 관리하는데 한계가 있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하천법」은 남북한 공유하천의 하천유지유량 산정시 북한지역에서 유입되는 유량을

반영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하천유지유량의 산정과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고 남북 수자원 협력 및 하천환경 보전, 홍수·가뭄 등 재해 예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홍수위험지도·가뭄취약지도·수문조사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임진강과 북한강 등 남북한 공유하천의 북한지역에서 유입되는 유량을 반영하도록 규정하여, 실효성 있는 재해 예방 및 수자원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남북 수자원 협력 및 하류지역 주민의 안전을

효과적으로 도모할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원은 “기후위기로 인한 홍수와 가뭄으로 그 어느 때보다 하천 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임진강·북한강 등 남북한 공유하천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남북 공동으로 수자원을 관리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향후 남북 간 협력을 염두에 두고 남한 하천과 유역에만 국한되어 적용되고 있는 「하천법」과 「수자원법」을 개정을 통해 남북 수자원 협력 및 주민안전과 자연재해 예방을 효과적으로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태창 기자

방송3법 개정은 윤석열 정부 방송장악 종식의 출발점

공영방송 국민 품으로 김현 의원, 공동주관

28일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3법 개정과 언론개혁 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과방위원회가 주최하고, 과방위 간사인 김현 국회의원, 민주언론시민연합, 전국언론노동조합 공동주관으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진행됐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22일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을 끝으로,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EBS법 등 이른바 '방송3법' 개정 절차가 모두 마무리된 것을 계기로 마련됐다.

토론회에는 김현 의원을 비롯해 노종민·김우영 국회의원, 양승동 전 KBS사장, 정미정 전 EBS 이사, 신미희 민연련 사무처장, 양한열 오픈미디어연구소장, KBS·EBS·YTN·TBS 언론노조 지부장 등이 참석해, 그간의 입법 성과를 진단하고,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 개편 등 후속 과제를 심도 있게 논의했다.

김현 의원은 토론회 발표에서 윤석열 정권의 방송장악 실태를 적나라하게 고발하고, 지난 22일 EBS법을 끝



28일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3법 개정과 언론개혁 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김태창 기자

으로 개정 작업을 모두 완료한 '방송3법'은 “정치적 후견 주의”를 타파하고 공영방송을 국민께 돌려드리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현 의원은 방송3법 개정안의 핵심은 △ 공영방송 독립성 강화 △ 편성 자율성 보장 △ 보도의 독립성 확보 △ 시청자 참여 확대와 같은 핵심 제도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의 정치적 편향성을 줄이고, 이사 추천 절차에

시민참여를 강화하는 등 정치적 독립성 확보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진행된 토론회는 이정환 슬로우뉴스 대표의 사회로 '방송3법 개정 성과', '방송장악 사례와 개혁 과제', '방송 3법 후속 개혁 방향' 순서로 진행됐다.

공동주관인 민주언론시민연합의 신미희 사무처장은 토론회에서 “방송3법 통과와 가장 큰 의미는 공영방송사장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공영방송 사장 추천을 제도화한 것”과 “시정자위원회 선임에 범으로 규정된 것”을 꼽았다. 이밖에도 방송편성 자율성이 개정안에 담긴 것도 큰 의의라고 평가했다.

참석한 토론회자들도 한목소리로 “방송3법은 출발점일 뿐”이라고 강조하며, △ 공영방송 개혁 △ YTN·TBS 정상화 △ 방통위·방심위 개편 △ 공정성 심의 제도 개선 등 후속 과제의

양문석 의원, 뮤직비디오 등급분류제도 개선을 위한 음악산업법·영화비디오 개정안 대표발의

2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양문석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안산시갑)이 뮤직비디오 자체등급분류제도 개선을 위한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뮤직비디오 등 음악영상물은 배급·유통 전 영상물등급위원회나 방송사의 등급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최대 2~3개월이 소요된다. 이러한 심의 절차는 음원 발매 시점과 영상물 홍보를 동시에 진행하는데 큰 제약이 되고, 이로 인해 영상 유통이 지연되면서 K-POP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유튜브 등 글로벌 플랫폼은 현행법상 뮤직비디오 심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음원 발매와 동시에 뮤직비디오를 유통할 수 있는 반면, 국내 음원 플랫폼은 뮤직비디오 심의 대상으로 분류되어 유통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결과적으로 국내 기업이

역차별을 받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

이에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지정사업자가 뮤직비디오 등 음악영상물에 대해 유통 전 자체등급분류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사후관리를 통해 등급 적정성을 유지하는 등의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양문석 의원은 “최근 K-POP 관련 애니메이션이 글로벌 OTT에서 역대 영화 1위라는 기록을 눈앞에 두고 있는 등 K-POP에 대한 세계적 관심이 뜨거워 만큼, 그 위상에 걸맞은 제도 개선을 통해 국내 음원 플랫폼 등 관련 산업의 성장을 위한 발판이 필요하다.”며 법안 발의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양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뮤직비디오에 대한 등급분류제도가 개선된다면, 국내 음원 플랫폼의 원활한 유통환경 조성과 함께 K-POP의 글로벌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개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이행을 촉구했다.

김현 의원은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미디어기구 개편도 속도있게 추진해 윤석열 정권이 망가트린 방송 정상화로 방송을 국민의 품으로 온전히 돌려드리겠다”라고 약속했다.

또한 “윤석열 정권에서 꺾박받은 인사들의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한 국민보고대회도 곧 준비하겠다”라고 밝혔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구봉도 해솔길1코스 개미허리 목재아치교 보수공사 중

시, 오는 9월15일 마무리
해솔길 1코스 관광객 급감

대부해솔길 1코스에 위치한 개미허리 아치교의 보수공사 관계로 당분간 낙조전망대까지 트레킹하고자 하는 매니아들은 개미허리아치교에서 되돌아 가는 일이 이어지고 있다. 안산시시는 오는 9월 15일까지 개미허리아치교 중 목재아치교 부분 보수공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현재 보수공사가 한창이다”고 현수막을 내걸었다.

공사는 (주)유니텍홈즈에서 맡고 있으며 공사중 불편 사항은 현장소장 (010-5446-7512)에게 문의하라고 설명하고 있다. 현재 개미허리아치교는 관광객 안전을 위해 잠정 폐쇄상태이며 공사가 마무리되는 9월16일 이후 통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월 3만여명에 이르던 대부해솔길 1코스 관광객이 종현어촌체험마을을 집계 결과, 8천여명이 줄어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 결과는 종현어촌체험마을을 체험

프로그램에 30% 정도 줄어든 효과로 나타나고 있고 두부마을과 바지락칼국수 및 구봉커피숍에 이르기까지 매출축소가 이어지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다. 대부분의 관광객이 개미허리아치교를 지나 낙조전망대를 가고자 대부해솔길 1코스를 선택하는데 개미허리아치교가 폐쇄됐다는 소식을 접하고 당분간 해솔길1코스 트레킹을 포기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대부해솔길 1코스 낙조전망대로 가는 길에 위치한 개미허리아치교의 목재아치교 부분공사로 당분간 폐쇄한다는 현수막이 내걸렸다. 공사는 9월15일 마무리 한다는게 안산시의 설명이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대부도 단신

대부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사·수강생 모집

- ▶ 모집강좌: 색소폰, 풍물, 에어로빅, 라인댄스, 파워댄스, 노래교실, 요가, 난타
- ▶ 강사모집: 2025. 8. 21~9.1 (18시까지)
- ▶ 수강신청: 매월 20일~말일
- ▶ 신청문의: 031-481-6949

선재도 플등 예술제 개최

- ▶ 일시: 2025. 9. 13~14 (양일간) 10시~17시
- ▶ 장소: 웅진군 선재도 플등 일대
- ▶ 주요 내용: 경운기 예술옷 프로젝트, 플등 위 예술버스, 플등 조각 프로젝트(현장 참여 프로그램), 바닷길 서커스 스케이프(현장 참여 프로그램), 버스킹 공연, 마을 장터
- ▶ 참여작가: 정다운, 이성민, 박건욱, 조용연, 박유빈, 전준수, 신이레, 이민영, 진효숙, 서커스스튜디오
- ※ 독자들의 애·경사를 연락주시면 신문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 연락처: 전화(032-880-9994) 팩스(032-880-9961) 핸드폰 문자(010-2535-2728)

대부도 산악회, 속리산 법주사와 괴산군 화양계곡을 다녀오다



대부도 산악회는 8월 28일 37명의 회원이 속리산 법주사와 괴산군 화양계곡에서 시원한 물놀이를 다녀왔다.

정찬빈 시민기자

8월 28일 37명의 회원 시원한 물놀이로 친교

대부도 산악회(회장 김근오)는 8월 28일 37명의 회원이 속리산 법주사와 괴산군 화양계곡에서 시원한 물놀이를 다녀왔다. 속리산의 대표 사찰인 법주사는 서기 533년 의신조사가 서역에서 불경을 가져와 산세의 험준함을 보고 이곳에 세운 절이라고 전한다. 대한불교 조계종 제5교구 본사이며, 2018년,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이라는 명칭으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에 등재됐다. 우리는 속리산 가로수길을 따라 트레킹을 하고 법주사 사찰을 구경했다. 괴산군 화양계곡에서는 수박을 먹으면서 시원한 물놀이와 함께 더위를 날려 보내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버스에서 노래를 부르며 즐거운 시간을 가지면서 개인의 소개는 물론 영업소개와 홍보도 하고 서로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대부도 정보를 교환하는 소통의 장이 됐다. 대부도 산악회는 전국 유명한 관

광지를 두루 다니며, 힐링하고 즐기면서 견문을 넓히고 삶의 지혜를 얻어 생활에 적용하면서 보람 있는 생활을 이어 가고 있다. 대부도 산악회 가입은 김근오 회장 (010-5339-2027) 이나, 황영애 총무 (010-8223-5646)에게 연락하면 바로 가입이 가능하다

정찬빈 시민기자 jeongcb@hanmail.net

대부도저널 광고문의 ☎ 032-880-9994

안산 12경 모바일 스탬프투어 운영

추억 쌓고 기념품은 덤

안산시시는 최근 확대 선정된 '안산 12경'을 널리 알리고 시민과 관광객들이 직접 체험하며 즐길 수 있도록 오는 9월부터 두 달간 모바일 스탬프투어를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시는 대부도의 해안 절경과 시내의 문화·생태 명소를 아우르는 안산의 대표 관광지를 안산 12경으로 확대 선정해 재정비한 바 있다.

안산 12경은 대부도 7개소 ▲시화화조력발전소 ▲대부해솔길 ▲구봉도 낙조 ▲탄도 바닷길 ▲풍도 ▲동주염전 ▲바다향기수목원과 안산시내 5개소 ▲안산갈대습지 ▲다문화거리 ▲김홍도길 ▲수암봉과 안산읍성 ▲호수공원과 무궁화동산으로 이뤄진다. 이번 스탬프투어는 확대 선정된 명소들을 방문, 모바일로 스탬프를 모을 수 있도록 기획된 프로그램이자, 여행의 즐거움과 기념품을 동시에 제공하는 특별한 이벤트다.

앱스토어 또는 플레이스토어에서 모바일앱인 '스탬프투어'를 내려받은 이후, '안산 12경 스탬프투어'를 클릭하면 참여할 수 있다. 관광지를 방문하면 GPS를 통해 자동으로 투어가 인증돼 스탬프를 획득하게 되며, 투어 완료 후에는 관내 음식점·카페 인증 후기 이벤트에도 참여할 수 있다.

이선화 기자 bareuge@hanmail.net



수개월째 구봉도 주차장에 방치된 택배트럭

대부해솔길 1코스를 걷기 위해 주차하는 장소로 이용하고 있는 구봉도 제1주차장에 수개월째 방치되어 있는 택배트럭이다. 주말이면 주차한 한 곳이 아쉬운 실정인데 이 택배트럭은 수개월째 버젓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 바퀴주면에는 잡풀이 무성하다. 관계기관은 철거를 빨리 밟아 처리하고 관광객이 한 번의 주차장이라도 더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한다는 지적이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행정사사무소



대부도측량설계사무소

대표 박정탁

안산시청 공무원 출신 행정사

- ◇ 2004년 안산시청 입사
- ◇ 2021년 안산시청 퇴직
- ◇ 대부도 3차례 근무 : 대부도 인허가 담당 (12~13년, 18년~21년)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부북동 504-2
Tel.032-880-8533 Fax.032-880-8532
Hp. 010-2378-7128 wjdskr78@hanmail.net

건축허가(신고)
개발행위허가
산지전용허가
농지전용허가
가설건축물
(체류형쉼터,농막)

개발부담금
불법사항해소
(건축물,임야,농지)
진정서, 탄원서
농지취득증명
각종민원해소

안산상공회의소, 제52회 상공의 날 기념 및 제35회 안산상공대상 시상식



안산상공회의소(회장 직무대행 부회장 김철봉, 이하 안산상의)는 8월 28일 안산상의 그레이트홀에서 '제52회 상공의 날 기념 및 제35회 안산상공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시상식의 최고 영예인 안산상공대상 중 경영대상은 (주)노루케미칼 최명희 前 대표이사가, 기술대상은 박정우 캐논코리아(주) 대표이사가, 근로대상은 신용구 삼화왕관(주) 노조위원장이 수상했다. 김태창 기자

안산 상공업 진흥 유공자 44명에 포상 및 격려 '경영대상'... 최명희 (주)노루케미칼 前 대표이사 '기술대상'... 박정우 캐논코리아(주) 대표이사 '근로대상'... 신용구 삼화왕관(주) 노조위원장

안산상공회의소(회장 직무대행 부회장 김철봉, 이하 안산상의)는 8월 28일 안산상의 그레이트홀에서 『제 52회 상공의 날 기념 및 제35회 안산 상공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시상식에는 상공업 발전 유공자 및 가족, 기업 관계자를 비롯해 이 민근 안산시장, 박태순 안산시의회의장, 방운제 한국노총 경기본부 안 산지역지부 의장을 비롯한 유관기관 장, 상공인 등 130여 명이 참석한 가

운데 △축하공연 △유공자 포상 △기 녘사 및 축사 △수상자 답사 △기념 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시상식의 최고 영예인 안산상 공대상 중 경영대상은 스마트팩토리 도입과 기술혁신으로 생산성과 품질 경쟁력을 높이고, ESG 경영과 지역 사회 공헌을 실천해 온 (주)노루케미칼 최명희 前 대표이사가 수상했다. 기술대상은 복합기 설계 기반의 자 체 기술 개발과 첨단 자동화 라인 구

축으로 생산성과 글로벌 경쟁력을 확 보하고 품질·환경·안전 경영을 선도 한 박정우 캐논코리아(주) 대표이사가 수상했다. 근로대상은 근면성실한 자 세와 모범적인 노사활동을 통해 조합 원 고충해소와 노사 화합, 안전한 근 로환경 조성에 앞장서 온 신용구 삼 화왕관(주) 노조위원장이 수상했다. 이외에도, 산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41명이 △국무총리 표창(1명)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11명) △ 경기도지사 표창(6명) △안산시장 표창(4명) △안산시의회 의장 표창(4 명) △안산세무서장 표창(2명) △동 안산세무서장 표창(1명) △안산세관 장 표창(1명) △고용노동부 안산지

청장 표창(3명) △유관기관 감사패(8 명)를 각각 받았다. 김철봉 안산상의 회장 직무대행 부 회장은 기념사에서 “세계 경제의 불 확실성과 디지털 전환 등 급격한 변 화 속에서도 열정과 도전으로 성장을 이뤄낸 수상자들의 헌신에 깊은 경 의를 표하며, 안산상의도 기업의 목 소리를 적극 반영해 지원과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안산상공대상 시상식’은 법정 기념일인 ‘상공의 날’을 기념하여 매 년 국가 및 안산 상공업의 진흥을 촉 진하고 산업 발전에 기여한 상공인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1989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다. 김태창 기자

안산해양중학교, 전국농구대회 준우승 쾌거를 이룬다!



안산해양중학교는 지난 전국 규모로 개최된 제3회 부총리 스포츠클럽 혼성팀 전국농구 대회에서 8월 25일의 결승까지 진출해 최종성적 준우승이라는 큰 성과를 거두었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안산해양중학교(교장 김영배)는 지난 전국 규모로 개최된 제3회 부 총리 스포츠클럽 혼성팀 전국농구 대회에서 8월 25일의 결승까지 진 출해 최종성적 준우승이라는 큰 성과를 거두었다. 이번 결승전은 상주실내체육관에서 열렸다. 안산해양중학교 농구팀은 안산 해양중학교 2학년 및 3학년 학생 으로 이루어진 팀으로 아침 시간 과 점심시간, 방과 후 시간 등의 연 습을 비롯해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실력을 만들어간 팀이다. 안산해양중학교 농구팀은 상주 실내체육관에서 이루어진 8월 24 일 일요일 1차 예선 경기에서 조 1 위로 결승 토너먼트에 진출해, 준 결승전에서는 15득점을 기록하며 20점 차의 큰 점수의 극적인 역전 승을 이루어 내며 결승 무대에 올 랐다. 안산해양중학교 농구팀은 결승

전에서도 강한 집중력과 투지를 발휘했다. 1쿼터를 11대 2로 앞서며 기선을 대외해서 8월 25일의 결승까지 진 출해 최종성적 준우승이라는 큰 성과를 거두었다. 이번 결승전은 상주실내체육관에서 열렸다. 하지만 마지막 4쿼터에서 아쉽게 역 전을 허용하며 최종 스코어 32대 41로 패해 준우승을 기록했다. 김영배 교장은 “이번 대회는 단 순한 경기의 의미를 넘어, 학생들 과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고 집중 력과 의지, 그리고 협동심의 중요 성을 다시금 느끼는 소중한 경험 이었다”며 “앞으로도 학교 스포츠 클럽 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체력 증진은 물론, 도전 정신과 공동체 의식을 기를 수 있도록 적극 지원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사단법인 루씨최용신선생기념사업회 캠페인 진행



사단법인 루씨최용신선생기념사업회에서 8월 23일 토요일 본오3동 주민자치회에서 주최하는 (청소년문화페스티벌 초중고꿈까대회)행사에서 최용신 선생 바로알기 캠페인을 진행했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잘 모르는 초, 중, 고 학생 및 시민분 들이 쉽고 재미있게 접하며 최용신 선생의 업적을 쉽고도 강력하게 기억 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이루어졌다. 퀴즈 내용은 △최용신 선생님이 주 인공으로 나온 소설 이름은? △최용 신 선생님을 기념하는 최용신 기념관 이 어느 동에 있을까요? △최용신 선 생님이 다닌 고등학교 이름은? (같은 이름의 어린이집이 본오3동에 있 음) △최, 용, 신으로 3행시 짓기 △두 사진 중 어느 분이 최용신 선생님이 실까요? (보기: 유관순 열사 사진, 최 용신 선생님 사진) △최용신 선생님 은 지역민과, 어린이, 부녀자들에게 한글과 민족정신을 가르치신 0000운 동가셨습니다. 1. 배드민턴 2.조기축구 3.농촌계몽 이날 캠페인에는 봉사자로 루씨최

용신선생기념사업회 김대현 부이사 장, 정희정 이사, 김선주 회원 등이 참 여했다. 캠페인 참여는 페스티벌에 참여하 는 안산시 여러 초, 중, 고, 대학의 보 컬팀, 밴드팀, 댄스 공연팀 청소년들 과 관람하러 온 남녀노소 시민들이 참여했고, 특히 최용신 선생과 상록 수 소설을 잘 모르는 많은 청소년들 이 행사장에 전시되어 있는 최용신 선생의 사진과 관련 사진들을 보고, 선생의 업적과 역사적 중요성, 의미 를 알 수 있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참여자에게 선물로 제공된 키링은 최용신 선생의 캐릭터 키링이어서 청 소년과 시민들이 친숙하게 최용신 선 생을 접할 수 있는데 큰 도움을 주었 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사단법인 루씨(樓氏) 최용신기념선생사업회 공모전 주최

사단법인 루씨(樓氏)최용신선생 기념사업회가 ‘2025년 안산 유아 행복그림 공모전’을 개최한다. 사단법인 루씨(樓氏) 최용신선생 기념사업회는 안산 유아들이 일상 에서 가족, 친구들과 보낸 행복한 추억을 되새기고, 최용신 선생의 어린이 교육정신과 나라사랑, 지역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갖 고자 해마다 ‘안산 유아 행복그림 공모전’을 개최해 오고 있다. 올해 공모 주제는 ‘일상에서 경험 한 행복하고 즐거웠던 일’이다. 가 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한 일상, 놀

이, 캠핑, 체험, 소풍, 나들이 등과 가정과 동네에서 있었던 소소하고 즐거웠던 일 등을 그림으로 담아내 면 된다. 참가 대상은 안산 어린이 집이나 유치원에 재원 중인 3세~5 세 유아(19년~21년생)면 가능하다. 접수 기간은 오는 9월 30일(화)까 지(마감일 우편 소인분까지다). 접수 방법은 우편접수 및 방문접 수 모두 가능하다. 접수처는 안산 시 상록구 각골로 5안길 10-9다. 자세한 사항은 루씨(樓氏)최용신 선생기념사업회(031-411-3223) 으로 연락하면 된다. 김태창 기자

최용신 선생 바로알기 위해 본오3동 주민자치회 행사서

사단법인 루씨최용신선생기념사업 회(이사장 김영덕)에서 8월 23일 토 요일 본오3동 주민자치회에서 주최 하는 (청소년문화페스티벌 초중고꿈 까대회)행사에서 최용신 선생 바로 알기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날 주요 행사는 안산시 보로마루 소극장에서 오후 2시부터 4시까지였

지만 루씨최용신선생기념사업회는 오전 11시부터 행사장을 찾아 오후 4 시까지 캠페인을 계속했다. 최용신 선생님과 관련된 여러 가지 퀴즈 중 하나를 뽑아 문제를 맞추고, 혹시 답을 모르면 옆에 게시되어 있 는 최용신 선생과 관련된 사진 자료 들을 보고 답을 찾아 맞추면 최용신 선생 캐릭터가 있는 키링을 선물로 받는 캠페인이었다. 퀴즈 내용은 최용신 선생과 역사를

안산시 소상공인 판로개척 지원 라이브커머스 지원사업 대상 점포 공개 모집

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은 지역 내 소상공인의 온라인 유통 판로를 확대 하고, 비대면 판매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025 라이브커머스 판로개척 지원사업’ 참여 점포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실시간 영상 기 반의 판매 방식인 라이브커머스를 통 해, 제품 경쟁력은 있으나 온라인 판 매 경험이 부족한 소상공인들이 새로 운 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실질적

인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소비가 일상화되면서 라이브커머스가 새로 운 유통 채널로 주목받고 있는 가운 데, 지역 점포들이 이러한 트렌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체계적 인 지원을 진행할 예정이다. 모집 기간은 2025년 8월 25일부터 9월 13일까지이며, 안산시에 사업장 을 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총 20개

점포를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점포에는 라이브커머스 방 송 송출에 필요한 기획부터 전문 쇼 호스트 섭외, 스튜디오 촬영, 송출 플 랫폼 연계까지 전 과정을 지원한다. 주요 플랫폼으로는 네이버 쇼핑 라 이브, 그림, 카카오톡라이브 등이 활용될 예정이며, 방송 전 제품 상세 페이지, 썸네일, 소개 영상 등 콘텐츠 제작도 함께 지원된다. 김태창 기자

본오3동 주민자치회, ‘초·중·고 꿈끼대회’ 성료



상록구 본오3동 주민자치회는 지난 23일 보노마루 소극장에서 청소년 문화 페스티벌 ‘초·중·고 꿈끼대회’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2025년 본오3동 자체 계획 실행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청소년들이 자신의 재능과 열정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무대로 마련됐다.

대회는 관내 초·중·고 학생들로 구성된 총 16개 팀이 참가해 ▲댄스 7팀 ▲밴드 4팀 ▲보컬 2팀 ▲치어리딩 1팀 등 다채로운 무대를 선보였고, 특별무대로 경희대 청원태권도장 시

범단과 신안산대 케이팝학과 크루엔댄스팀이 출연해 한층 풍성한 공연을 선사했다.

송준조 본오3동 주민자치회장은 “지역 청소년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더 큰 꿈을 키워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문화 활동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배지홍 본오3동장은 “‘꿈끼대회’는 청소년들이 기획하고 만들어가는 문화 축제로, 단순한 경연을 넘어 서로의 열정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윤성용 기자

성포동 지사협, 사계절 이불 나눔으로 온기나눔



상록구 성포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22일 관내 어르신 20가정을 대상으로 사계절 이불을 전달하는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계절에 상관없이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이불을 지원함으로써, 홀로 계시는 어르신들의 건강한 생활환경을 개선하고자 마련됐다.

홍경희 위원장은 “사계절 이불은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성 제품으로 어르신들의 건강과 쾌적한 생활을 돕고자 준비했다”고 말했다. 이선화 기자

신안산로타리클럽, 그랑시티자이1차 경로당에 후원



상록구 해양동 행정복지센터는 27일 국제로타리3750지구 신안산로타리클럽(회장 김현철)이 그랑시티자이1차아파트 경로당에 후원품을 기탁했다고 28일 밝혔다.

국제로타리3750지구 신안산로타리클럽은 지역사회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하며 순수한 봉사활동을 실천하고 있는 단체다.

신안산로타리클럽은 관내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그랑시티자이1차아파트 경로당(회장 이종광)에 40만 원 상당의 청소기 2대를 기탁하고,

더운 여름을 나고 있는 어르신들을 위한 식재 50개를 마련했다.

김현철 회장은 “어르신들이 청결한 환경을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 후원품을 전달하게 됐다”며 “지역사회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부응하고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맞춤형 나눔을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훈기 해양동장은 “꾸준한 나눔 실천하는 신안산로타리클럽에 감사드리다”며 “경로당 건의 사항을 귀 기울여 쾌적한 경로당을 만들어 가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윤성용 기자

와동 지사협, 중장년 발굴 사업 ‘다함께 차차차’ 추진



단원구 와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27일 와동종합사회복지관에서 중장년층의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지원하기 위한 ‘다함께 차차차!’ 사업을 진행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중장년 대상자 10명과 지사협 위원들은 원예활동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상호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다.

‘다함께 차차차’ 프로그램은 대상자와의 생활 밀착형 교류로 일상 복귀와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돕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정희재 기자
heejae0919@hanmail.net

▲식사쿠폰 4만 5천 원 ▲미용실쿠폰 3만 원 등을 지급해 대상자의 다양한 욕구 해소와 일상 회복을 지원한다.

이창복 민간위원장은 “중장년 1인가구의 고립·은둔 실태에 맞는 고독사 위험자 판단도구를 통해 선정된 대상자들은 우리 사회의 어두운 단면”이라며 “비극의 재발 방지를 위해 고독사 위험 없는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이동 참사랑봉사회 ‘사랑의 먹거리 나눔 행사’



상록구 이동 참사랑봉사회(이하 이참봉)는 지난 22일 관내 홀몸어르신 100가정에 직접 만든 삼계탕, 찰밥, 열무김치를 전달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달에 이은 올해 두 번째 먹거리 나눔 행사로, 회원들은 전날부터 준비한 식재료로 새벽부터 조리한 음식을 정성껏 포장해 이동 각 통장을 통해 직접 어르신 댁을 방문해 전달하며 따뜻한 마음을 전했다.

이번 행사에도 관내 안산만나교회(김영길 목사)에서 조리를 위한 주방을 제공했다. 이선화 기자 bareuge@hanmail.net

박종천 이참봉 회장은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작은 나눔이지만 이웃들을 위해 따뜻한 정을 나누게 되어 기쁘며, 앞으로도 지역사회를 위해 나눔 및 봉사활동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옥란 이동장은 “이참봉은 이동에 있는 비영리 봉사단체로 해마다 꾸준히 관내에 많은 나눔과 봉사활동을 하고 있어 참사랑봉사회 회원 여러분과 후원자분들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초지동, 초지권역 민생안전회의 개최



단원구 초지동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25일 동 청사 회의실에서 ‘제1회 초지권역 민생안전회의’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역 내 안전 현안을 점검하고 기관 간 협력체계를 공고히 해 재난·사고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자리였다. 이날 회의엔 초지권 관내 8개 기관(성곡·원시119안전센터, 공단파출소, 별망초등학교, 안산호원초등학교, 별망중학교, 초지중학교, 초지동행정복지센터) 기관장이 참석해 지역 안전 현

안과 협조 사항을 공유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선 ▲폭우·폭설 등 자연재해 대비 대책 ▲반달섬 인구 증가에 따른 치안·행정지원 문제 ▲학교 주변 교통안전 및 시설 정비 ▲공단지역 화재와 불법 주정차 문제 등 다양한 현안이 집중 논의됐다.

황병노 초지동장은 “민생안전회의를 통해 기관 간 신속한 협조체계를 마련하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며 살기 좋은 초지동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정희재 기자



대부도저널 트레킹 투어 회원모집

‘대부도저널’에서 매일 1회씩 전국 유명 트레킹 장소를 투어하기 위한 ‘저널 트레킹 투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걷는 것을 좋아하는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첫번째 저널 트레킹

- 일시 : 2025년 9월 10일(수) 오전 8시 출발 (오전 7시 50분까지 집결)
- 장소 : 트레킹 장소 (강원도 철원 소이산 둘레길 등)
- 모집 인원 : 선착순 40명
- 모집 마감일 : 9월 3일까지 (여행자 보험위해 주민번호 필요)
- 연락처 : 신문사 032-880-9994 / 이선화 과장 010-2535-2728
- 참가비 : 1인당 5만원 (식비, 관광버스 왕복, 간식, 물, 보험, 레일바이크 탑승료 포함)
(계좌 : 농협 352-2309-3205-43. 예금주 : 이선화 / 입금 후 연락바람)
- 집결장소 및 시간 : 대부도저널 주차장 (단원구 상동로 97)

광고문의

032.880.9994

대부도저널

대부 우체국

032.886.0001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부중앙로 93

토지매매

(1)대부북동삼거리 인근 성장관리계획구역 주택단지
(2)건축허가 300평(도로56평 포함). 평당 90만원
(3)대부동동(영전마을)대송단지 앞 맹지.답. 350평 평당35만원

김선중 공인중개사 M: 010.3199.4992

군자농협 대부지점

032.886.3100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부북동 469-13

인천강화웅진
축산농협 대부지점

032.886.0082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부중앙로 101

경인서부수협 대부지점

032.886.0082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부중앙로 101

최욱진 세무회계사무소

최욱진 T: 031.8042.6670

안산시 상록구 28,201호(본오동,보노피아빌딩)

대부도 주민자치회

위원 황진 M. 010-7632-1150

한주토목측량설계공사

김장식 M. 010.5345.9852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선로 40-1 (대부북동)

용담바다낚시터

오준태 M. 010.5285.0667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 용담바다낚시터

행정사사무소

박정탁 M: 010.2378.7128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부북동 504-2

등대바다낚시터

이한종 M. 010.3738.6613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부남동 187-4

동주염전 소금

토판 소금 / 일반 천일염 / 송하소금 판매

김관중 M: 010.9080.1195

안산시 단원구 중부흥 127-1 / 동주염전 2구

말부흥 어촌계

계장 신준선 M. 010.7340.5511

K3 바다낚시터

최병희 M. 010.5230.8536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부동동 643-35

(주) 황금토목측량설계공사

유재용 M. 010.3433.4635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황금로1288 (대부북동)

GS25 대부포도점

빈호준 M. 010.9220.2039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선로 667(대부남동), 202호

서해부동산

박현배 M. 010.8810.3801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어지런이길 61-8(대부남동)

미래기획

25년 경력 간판. Led채널. 현수막. 씀팅. 현수막

이 병 철 M: 010.9366.9699

리라조경

박용복 M. 010.3703.9300

인천광역시 옹진군 선재로 34번길 23, 103호

선재낚시공원

조부형 M. 010.8813.0515

바지락마을손칼국수2호점

백영태 M. 010.4403.4498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부해안로42 (대부북동)

히든펜션

최은숙

안산시 단원구 대호1길 19 M : 010.9913.8956

아테네펜션

차준경 M: 010.5353.2755

안산시 단원구 대부북동 1622-5

대부도 방아머리의 명소
카카오스

조재숙 M: 010.2492.1800

안산시 단원구 대부황금로 1501-1

반달섬
분양.임대.매매

(주)대동토지개발

양금순 M: 010.8722.5095

안산시 단원구 시화호수로 633, 118호

규현공방

수족관 제작에서 관리까지 맡겨주세요

조규현 M: 010.4071.2797

“웅진·강화·연천·가평군,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

경인지방 인구감소·접경지역 지방우선정책 대상 포함해야

웅진군은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강화·연천·가평군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지방우선정책에서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소외되고 있는 경인지방 인구감소·접경지역의 공정한 지원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성원(동두천·양주·연천), 배준영(중구·강화·웅진), 김용태(포천·가평) 국회의원을 비롯해 4개 군 단체장이 참석,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도 비수도권 지역과 동일하게 국가 정책의 우선 지원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공동건의문을 발표했다.

공동건의문은 ▲첫째, 웅진·연천·가평·강화 4개 군을 모든 지방우선정책 대상에 포함할 것. ▲둘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인구감소지역을 배제하는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할 것. ▲셋째, 국가 균형성장 정책을 실질적인 위기 해소 기준으로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문경복 웅진군수는 “우리 지역은 행



웅진군 문경복 군수는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강화·연천·가평군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지방우선정책에서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소외되고 있는 경인지방 인구감소·접경지역의 공정한 지원을 촉구했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정구역상 수도권에 속하지만, 교통·산업·생활여건은 비수도권 농산어촌보다 열악한 서해 최북단의 섬 지역이다”며, “도서지역의 특수한 열악성과 접경지역의 희생을 고려해 국가

정책에서 역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웅진군 등 4개 군은 이번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공동건의문을 공식 전달하고, 향후 4개 지자

체가 합동 협의를 통해 인구감소지역 내 인구 증가를 위한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공동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김태창 기자

함께 배우고 함께 나누는 주민 중심 복지이야기

웅진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량강화 순회교육 실시

웅진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공위원장 문경복, 민간위원장 김만희)는 28일, 7개면 협의체 위원을 대상으로 ‘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량강화 순회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순회교육은 대청면을 시작으로 8월부터 10월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되며 주민조직화 전문교육 강사가 ▲면 협의체 위원의 역할 ▲복지 사각지대 이웃 발굴 등을 위한 관계형성 및 소통방법을 주제로 교육을 운영한다.

김만희 민간위원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협의체 위원 각자가 맡은 역할에 대해 돌아보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의사소통 역량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면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는 지역사회 보호체계 구축과 지역복지 활성화를 위해 각 면에 구성된 기구로, 현재 웅진군 7개면 140여 명의 면 협의체 위원이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복지대상자 발굴 및 지역자원 연계 등 지역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정희재 기자 heejae0919@hanmail.net



웅진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28일, 7개면 협의체 위원을 대상으로 ‘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량강화 순회교육’을 시작하고 있다.

정희재 기자

(주)대형디앤씨 대표 조부형 웅진군 고향사랑기부금 500만원 전달

웅진군은 28일, 웅진을 사랑하는 (주)대형디앤씨의 조부형 대표가 고향사랑기부금 500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평소 웅진군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조부형 대표는 지난 2024년에 이어 2025년도에도 고향사랑기부금 500만원을 전달하며, 어김없는 웅진 사랑을 보여주고 있다.

조부형 대표는 “고향사랑기부제 취지에 적극 공감하며 지역 발전과 복지 증진에 도움이 되기 위해 기부를 이어오고 있다”며, “이번 기부가 웅진군 발전과 군민 복지 향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전국적으로 고향사랑기부제가 더욱 활성화 되

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앞으로도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을 나누고 실천하겠다”고 덧붙였다.

문경복 웅진군수는 “군 발전을 위해 소중히 마음을 담아 기부해 주신 조부형 대표께 고마움을 전하며, 기부금은 군민이 공감하는 곳에 소중하게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할 수 있는 제도로, 기부금의 10만원까지는 전액, 10만원 초과분부터는 16.5%의 세액공제 혜택뿐 아니라, 기부액의 30%를 지역 특산품으로 답례품을 받을 수 있어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연평면 제3회 주민총회 개최

웅진군 연평면(면장 황준철)은 지난 26일, 연평면 주민자치회(회장 박인환)가 주최한 2025년 제3회 연평면 주민총회가 연평국민체육센터에서 성황리 개최됐다고 밝혔다.

이번 총회에는 문경복 웅진군수, 배준영 국회의원, 신영희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김영진 웅진군의회 부의장, 김규성 웅진군의회 의원, 이종선 웅진군의회 의원, 김민애 웅진군의회 의원 등 여러 내빈이 함께 자리한 가운데 2025년 주민자치회 활동사항 보고, 2026년 자치계획(안) 설명, 시범사업 투표 결과 발표 순으로 진행되었다.

지난 17일부터 4일간 실시한 사전투표 결과를 바탕으로 ‘함상길에

피는 기억의 꽃’과 ‘연평해(海) 주민 힘으로 구한다’가 2026년 자치사업으로 확정되었다.

박인환 주민자치회장은 “그간 사업 발굴 및 오랜 논의 과정을 함께 해준 주민자치회 위원들과 투표과정에 참여한 많은 주민들께 감사드리며, 선정된 사업을 잘 추진하여 연평면민의 삶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경복 군수는 “주민들이 머리를 맞대어 만들어낸 결과물이 살기 좋은 연평면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주민들이 발굴한 사업이 빠르게 추진되어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정희재 기자 heejae0919@hanmail.net

웅진군, 2025년 상반기 고용률 76.7% 7개 특광역시 구·군지역에서 1위 차지

웅진군은 27일, 2025년 상반기 고용지표에서 지역 고용률이 7개 특광역시 구·군지역 1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통계청이 지난 21일 발표한 ‘2025년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시군구 주요고용지표’에 따르면 웅진군 취업자 고용률은 전년 동기 대비 0.8%p 상승한 76.7%로 전국 3위, 7개 특광역시 구·군지역에서 1위를 차지했다.

고용률은 지역 경제 회복과 활력

을 의미하는 중요한 지표로, 웅진군은 다양한 공공일자리를 제공하여 관내 주민들의 생계유지와 소득보전을 위해 힘썼다.

임상훈 경제산업국장은 “기존의 일자리 뿐만 아니라 향후 양질의 일자리를 발굴·제공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주민의 생계지원과 관내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어 군 전체의 지역경제를 부양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성용 기자



대부도저널 피싱클럽 회원모집

대부도에서 낚시를 떠나고 싶는데 선뜻 혼자 떠나기 망설여지시나요?

대부도저널 피싱클럽에서는 안산 대부도를 거점으로 전국을 무대로 생활낚시의 모든 장르 투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바다에서 낚시를 하고 싶은 분들은 저널 피싱클럽과 함께 떠나시기 바랍니다.

■ 저널 피싱클럽 소개

1. 활동내용 : 정기 출조, 낚시기술 공유, 친목도모
2. 낚시대상어종 : 우럭, 농어, 대광어, 갑오징어, 쭈꾸미, 문어, 백조기, 심해 갈치
3. 정기모임 일정 : 매월1회 정기 출조 (유어선 독배운영)
4. 대상 : 낚시를 좋아하는 모든 남,여 / 초보자 대환영 / 대부도 거점으로 서울, 경기권 누구나 회원으로 가입 가능
5. 연락처 : 신문사 032-880-9994 / 이선화 과장 010-2535-2728

★동호회 혜택 : 초보자를 위한 낚시 장비 사용법 및 기초교육, 숙련된 회원들과 경험 및 노하우 전수

정기 출조 이벤트 및 선비 할인



고영인 경제부지사 중국 랴오닝성 부성장과 협력방안 논의



고영인 경기도 경제부지사는 25일 오후 경기도청에서 산이(單義) 중국 랴오닝성 부성장과 만나, 경제·산업·문화·관광·인적교류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김태창 기자

25일 중국 랴오닝성 산이 부성장과 만남

고영인 경기도 경제부지사는 25일 오후 경기도청에서 산이(單義) 중국 랴오닝성 부성장과 만나, 경제·산업·문화·관광·인적교류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랴오닝성은 중국 동북 3성의 경제·사회·교통 중심지이자 한반도와 가장 가까운 북-중 교역 최대 거점이다.

고영인 부지사는 “경기도와 랴오닝성은 제조업 중심 산업구조 및 전통 산업 고도화·신산업 전환 등 정책방향 면에서 공통점이 많다”며 “새 정부 출범과 경주APEC 정상회의 개최 등 한중 관계 개선의 모멘텀을 맞아, 한중 지방교류 선도 지역인 경기도와

랴오닝성이 실질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자”고 말했다.

특히 고 부지사는 ▲경기도 선양 경기비즈니스센터(GBC) 기반 기업 비즈니스 협력 지원 강화와 양 지역 주 최 대표전시회 상호 참가 ▲공무원 정책연수단 상호 파견 등 정책교류 ▲대표박물관 특별 초청전시와 문화 예술단 상호 파견 등 문화교류 ▲양국 비자 면제 조치에 따른 관광자원 공동 홍보 및 마케팅 ▲경기도-랴오닝성-가나가와현이 주도하는 3지역 우호교류회의 및 청소년 스포츠 교류 대회 등 한중일 지방 협력 강화를 제안했다.

산 부성장은 “경기도는 랴오닝성이 한국에서 처음으로 친선 결연을 맺은 가장 긴밀한 친구”라며 “특히 최근 김동연 지사와 하오펑(郝鵬) 당시

기간의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경제·문화·관광·인적교류 등 전방위적으로 활발한 협력이 이뤄지고 있다”고 화답했다. 그는 “고 부지사의 5대 협력 제안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랴오닝성 국제투자무역박람회 및 선양 한국 주간 등 경제문화협력, 인공지능·빅데이터·스마트제조 등 첨단산업 협력, 농업과학기술 교류, 인적·문화적 교류를 지속 강화해 양 지역이 한중 지방협력의 모범이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또한 경기도 대표단을 랴오닝성에 초청하기도 했다.

경기도와 랴오닝성은 한중 수교 이듬해인 1993년, 상호 간 상대국 내 첫 번째 친선 결연 지역으로 교류를 시작한 이후, 경기비즈니스센터(GBC) 선양(瀋陽) 개소(’11), 해외 지폐어 개

료, 교류 공무원 파견근무 등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해 왔다. 또한 상호 친선 결연을 맺고 있는 일본 가나가와현과 함께 한·중·일 3국 지방정부 협의체인 3 지역 우호교류회의와 청소년 스포츠 교류대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며 다자 협력을 이어오고 있다.

특히 2023년 10월 김동연 지사의 친선 결연 30주년 기념 랴오닝성 방문과 2024년 4월 하오펑 당시의 경기도 답방을 계기로 랴오닝성박물관 소장 유물 초청전, 경기도 예술단 랴오닝성 파견 공연 등 교류분야를 한층 더 확대하고 있다. 앞으로 경기도와 랴오닝성은 양 지역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분야에서 실질협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장애인 표준사업장 (주)휴림컴퍼니 시흥시 1% 재단 마스크 후원



안산시 대표적인 장애인 기업 (주)휴림컴퍼니가 마스크 20만장(4천만원 상당)을 시흥시에 기부했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안산시 기업 (주)휴림컴퍼니 마스크 20만장 기부

안산시 대표적인 장애인 기업 (주)휴림컴퍼니(대표 이창희)가 마스크 20만장(4천만원 상당)을 시흥시에 기부했다고 22일 밝혔다.

시흥시는 지역의 틈새 저소득층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및 복지 사업을 전개하기 위해 시흥시가 출연하여 사회복지법인인 “시흥시 1% 재단”을 2024년 12월에 설립하였다.

이날 시흥시에 전달되는 마스크는 (주)휴림컴퍼니의 후원으로 (사)한국교통장애인협회 시흥시 지회와 연계하여 “시흥시 1% 재단”을 통해 저소득층 나눔 문화 조성, 사회복지 시설에 마스크를(KF-94) 지급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였다.

앞서 휴림컴퍼니는 안산상공회의소와 안산시자원봉사센터, 한국노총 소속 80개 기업에게 산업용 방진마스크 등을 기탁한 바 있

며, 안산YMCA 등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기부를 하고 있다.

(주)휴림컴퍼니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운영하는 기업으로 장애인 차별 없이 모두가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목표를 가지고 산업안전 관련 물품을 전문적으로 생산·유통하는 기업이다.

(주)휴림컴퍼니 이창희 대표는 “저희 사업장은 장애인들을 고용하여 기업을 경영 하고 있다면서 어려운 환경도 있지만, 경영인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ESG 실천의 하나로 시흥시, 안산시 및 지자체 여러 단체에 마스크 후원행사를 하고 있다”고 훈훈한 의지를 표명했다.

향후 (주)휴림컴퍼니에서는 꾸준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지역사회의 발전과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아름답고 훈훈한 모습으로 또 다른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다양한 발전적인 모습이 기대된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경기도의회, 2025 시·군의회 언론홍보담당 워크숍

경기도의회는 8월 28일부터 29일까지 성남에서 도내 시·군의회 홍보 담당자들과 함께하는 ‘2025년도 경기도의회-시·군의회 언론홍보담당 워크숍’을 진행했다.

이번 워크숍은 급변하는 언론환경과 디지털 미디어 확산에 맞춰 도내 각 시·군의회 의원들의 언론홍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워크숍에는 임채호 의회사무처장과 언론홍보과 소속 직원, 도내 각 시·군의회 직원들이 참석했다.

홍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전문가 김진희 강사와 손정영 강사의 AI 활용 SNS 의정홍보 특강이 각각 이뤄졌고, 홍보 콘텐츠 실습 및 우수사례 발표와 그룹토의 등을 통해 실제로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실무 중심으로 교육이 진행됐다.

특히, 경기도의회 마스크트 ‘소원’의 활용과 웹드라마를 통한 의정홍보의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는 시간도 가졌다.

임채호 사무처장은 “의정활동은 도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어야 하며, 홍보는 단순한 전달을 넘어 도민과의 소통을 이끌어내는 창구”라며 “도민의 관심과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전략적 홍보와 체계적 소통, 그리고 혁신적인 홍보 전략과 실무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는 8월 28일부터 29일까지 성남에서 도내 시·군의회 홍보 담당자들과 함께하는 ‘2025년도 경기도의회-시·군의회 언론홍보담당 워크숍’을 진행했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이어 임 사무처장은 “이번 워크숍에서 AI 활용 SNS 홍보기법 등 최신 트렌드를 공유하고, 도의회와 각 시군 의회가 우수 사례를 나누며 함께 발

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홍보 역량 강화 프

로그램을 통해 도민 중심의 열린 의정 구현에 앞장설 계획이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경기도남부경찰, 개학기 ‘제동장치 없는 픽시자전거’ 집중단속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가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제동장치 없는 픽시자전거’ 운행에 제동을 걸었다.

28일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에

따르면 위원회는 최근 경기도남부경찰청이 수립한 픽시자전거 집중단속 계획을 승인하고 2학기부터 전면 단속에 나서도록 했다.

‘픽시자전거’가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며, ‘제동장치 미부착 운행’은 도로교통법상 ‘안전운전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는 경찰청의 법률 검토를 반영해 개학기부터 단속과 계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김태창 기자

경기남부권 자율방범대연합회 이상호 회장 공식 출범

안전과 치안을 위한 연대 도민 행복의 울타리가 될터

경기남부 자율방범대 연합회(회장 이상호)는 8월 23일(토) 오후 3시, 안양시청 2층 강당에서 발대식을 열고 도민 안전과 지역사회의 범죄예방 활동을 위한 힘찬 출발을 알렸다.

이날 행사에는 이상호 연합회 회장을 비롯한 경기남부권 각 지역 자율방범대 임원진과 고영인 경기도 경제부지사, 강득구 국회의원, 문형근 경기도의원, 이채명 경기도의원 등 주요 내빈과 도내 방범대원 및 시민 300여 명이 참석하여 연합회의 출범을 축하했다.

행사는 봉사자 선서, 임명장 수여, 연합회 활동 결의문 낭독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참석자 전원은 “시민 행보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 범죄예방과 봉사활동을 생활화하겠다”는 뜻을 모았다.

자율방범대는 전국적으로 4천여 개 조직, 약 10만여 명이 가입해 활동 중인 대표적인 주민 자율

봉사단체다. 범죄예방 순찰, 청소년 선도, 여성·아동 안심귀가 지원 등 생활밀착형 활동을 통해 치안 공백을 메워왔다.

특히 2023년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자율방범대는 법적 근거를 갖춘 법정 단체로 거듭났으며, 전문성과 안정성을 확보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상호 경기남부 자율방범대 연합회 초대 회장은 취임사에서 “지역의 안전을 지켜온 자율방범대가 법정 단체가 된 이후 1년 10개월을 돌아보면 아쉬움도 많지만, 그동안의 경험과 노력을 바탕으로 더 발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잘되고 있는 점은 계승·발전시키고, 부족한 점은 함께 개선해 나가겠다”며 “경기남부 자율방범대 연합회가 도민 안전을 위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제가 근무하는 동안 대부동이 더 발전하고 나아졌으면 좋겠다’

대부동행정복지센터 장봉순 동장

대부동행정복지센터 장봉순 동장은 올 2월 17일자로 부임했다. 이제 6개월이 약간 지났다. 대부도를 알아가고 있는 시간이다. 하지만 장 동장은 “제가 근무하는 동안 대부동이 더욱더 발전하고 나아졌으면 좋겠다”는 각오로 오늘도 주민들과 격의 없는 대화를 이어가고 있다. 9통 두우현 경로당 입구에 중앙선이 절선 되지 않아서 어르신들과 주민분들이 불편을 겪고 있었고 사고위험이 있어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요구되었던 민원을 해결한 것을 보람으로 생각할 만큼 주민 친화적이고 애민정신이 강한 공직자다. 대부동 11개 직능단체와도 격의 없이 지내면서 대부동 발전을 꾀하고 있고 대부동 주민총회 이후 후속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이 많은 동장이다. 대부동의 변화를 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장봉순 동장을 28일 동장실에서 만났다.

대부동장으로 부임한지는 얼마나 되었고 대부동과는 어떤 인연이 있을까요?

“지난 2월 17일자로 대부동장으로 임명되어서 근무하고 있으며, 대부도와 특별히 인연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민근 시장님이 늘 앞으로 안산의 미래 발전의 한 축은 대부도라고 강조하였기에 한편으로 대부도가 어떤 곳인지에 궁금하기도 했는데 마침 대부동으로 발령을 받게 되어 즐겁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근무하면서 보람된 일이 있다면?

“9통 두우현 경로당 입구에 중앙선이 절선 되지 않아서 어르신들과 주민분들이 불편을 겪고 있었고 사고위험이 있어 24년부터 지속적으로 요구되었던 민원을 대부파출소, 시 철도교통과, 동 행정복지센터, 주민분들이 공동으로 요구하고 대응해서 하반기에 중앙선 절선을 이루어 낸 사례가 부임 이래 가장 보람된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부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는 일은 어떤 것인지, 주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구청, 대부해양본부, 시청과 다른 점은 무엇인지도 설명해 주시지요?

“시청은 도시계획, 예산·정책수립, 대규모 사업 등을 추진하는 곳이며, 구청은 시청권한 일부를 위임 받아 생활행정(건축 인허가, 환경, 위생, 청소 등)과 구 단위 민원을 처리하는 곳이고, 대부해양본부는 시청 직속 사업소로 대부도·해양관광 개발, 어촌지원, 해양환경 보존, 어업·레저 산업 지원, 소규모 개발행위 허가 등의 업무를 추진합니다. 이에 반해 동 행정복지센터는 최 일선에서 지역사회의 문화, 복지, 주민등록 민원서류 발급 등 행정 전반에 대한 지원을 하는 곳이지요. 기존 행정사무 중심이었던 체제가 최근에는 문화, 복지기능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는 점은 특이점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정리하면 시청은 도시의 큰 그림을 그리는 정책을 총괄하고, 구청은 중간관리자로서 생활행정 중심의 업무를 추진하며, 대부해양본부는 대부도의 개발과 해양·도시 특화 행정을 추진하고 동 행정복지센터는 주민 밀착형 민원·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대부동의 직능단체 설명 및 동 행정복지센터와는 어떤 관계로 지내고 있는지, 예를 들면 지원방안이나 업무협조 방안 등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대부동은 현재 주민자치회 및 통장협의회 등 총 11개의 단체가 구성되어 운영중에 있

습니다. (주민자치회, 통장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새마을 남·녀지도자협의회, 바르게살기위원회, 체육회, 자율방재단, 자유총연맹, 자율방법대) 주민자치회는 이웃과 함께 지역사회 공동관심 의제를 스스로 발굴하고 해결해 나가는 단체로 각종 문화, 취미 등의 여가활동을 지원하는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한 심의·의결 단체입니다. 통장협의회는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동 주민과 행정복지센터를 연결해주는 최일선 단체로 시정 및 동정 홍보사항을 신속히 주민들에게 전달하는 등 주민의 대표성을 띠고 있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역사회 복지 문제 해결을 위해 민관 협력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조직으로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을 담당합니다. 새마을남녀지도자협의회는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봉사활동 진행하고 있고, 체육회는 주민들의 체육활동 활성화 및 체육대회 등을 주관합니다. 자율방범대는 야간 순찰활동을 통해 주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바르게살기위원회와 자유총연맹의 경우 새로 구성된 지 얼마되지 않아 지금 회원모집 등 활성화를 위해 노력중입니다. 대부동은 직능단체연합회란 이름으로 월1회 단체장 회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회의를 통해 시정 및 동정사항 홍보는 물론 각 단체별 행사 및 소식 등을 나누면서 소통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마련된 주민소통방은 대부도 관련 다양한 사항을 나누고 언제든지 소통할 수 있는 장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대부동 주민총회 후 후속 지원방안은?

“주민총회를 통해 발굴된 의제들은 주민 생활에 밀접한 마을 문제이기에 지역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를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생각입니다. 매년 총회를 개최하면서 나타나는 주민들의 피드백을 반영하는 등 지역 사회 구성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포괄적인 참여를 유도하도록 할 것입니다.”

대부동 성장관리계획 변경안이 통과되면 대부동은 어떻게 변하는 것입니까?

“난개발과 무질서한 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의 난개발 방지와 개발행위허가의 체계적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심의면제와 인센티브 부여로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고자 대부동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하고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사항입니다. 전체 면적 중 높은 녹지지역 비율 및 타 지자체에 비해 낮은 건폐율로 경쟁력이 약화된 대부동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사항으로 성장관리계획 시행 후 운영상 개선점을 반영하고 해석상 혼선이 있는 문구 등에 대하여 내용을 명확히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 지역실정에 맞도록 세부 시행지침을 조정한 사항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구역 지정 및 계획수립의 주요내용에 대한 변경은 없으며 대부동 내 부족한 기반시설 확보를 위해 개발행위 주체가 기반시설(도로)을 직접 설치하도록 성장관리계획 기준이 수립되었고 지역특성을 고려한 구역내 적정대지규모 기준과 건축물 용도 관리방안이 마련되었기에 보다 효율적인 대부동 개발이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부동 행복마을관리소는 어떻게 운영되고 어떻게 이용하면 되는지?

“주거 취약지역의 생활불편 해소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상시 및 즉각적 생활밀착형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현재 1명의 사무원과 2명의 지킴이로 구성되어 총 3명이 근무



장봉순 대부동장은 지난 2월 본청 시민협력관으로 있다가 이곳 대부동으로 자리를 옮겼다. 주민과 어울리다 보면 퇴근을 놓쳐 일주일에 2~3회는 관사에 머무른다는 장 동장. 주민들의 아픔을 보듬고, 주민들과 조금이라도 더 함께 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아름다워 보인다. 대부도를 조금이라도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한다는 장 동장의 하루하루가 대부도에 녹아내리기를 기대해본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주거 생활환경 개선, 홀몸 노인돌봄 및 말뚝, 취약계층 가스타이머 설치 등 주민불편사항 처리와 대부동의 지역 특성을 고려한 어르신 영양식 반찬나눔 사업, 공구대여 사업, PC 및 팩스 등 전산장비 무료 운영 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부동 민박협회가 세 곳이나 된다. 하나로 모아야 하지 않을까 하는데...

민박협회는 사)한국농어촌민박협회 경기도 지부 안산지회와 사)안산시농어촌민박협회 그리고 자생적인 일반민박협회 세 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비록 지금은 각 단체의 생각이 다른 것으로 보이나 대부도 발전을 위해서는 결국 통합이 필요한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세 단체의 통합은 사적인 영역에 있어서 동에서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것은 조심스러운 면이 있으나 향후 세 단체가 모이는 자리를 마련할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대부동 인구가 언제 5만명이 되는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민관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안산시는 대부동 지역을 인구 5만인 이상 자족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해 2025년 2월 대부동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핵심 키워드는 정주성 확보, 관광 활성화, 자족성 확보, 지속가능한 개발환경 조성임. 계획된 사

업 구성안에 대해 각 부서별로 구체화 및 실행방안을 검토중입니다. 대부동의 경우 50세 미만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60세 이상 노령인구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생산연령대의 유출방지와 인구고령화에 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특히 대부동의 내외부에서 다양한 개발이 논의중에 있어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정주 인구증가로 높아질 교통수요에 대응하는 교통망 확충이 필요합니다. 특히 주거지역 진입로 개설, 보행공간 설치공사 등 교통기반시설 확충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역자원을 활용한 관광활성화와 로컬산업, 신산업 유치로 통한 자족성을 확보하고 지속가능한 개발환경을 조성한다면 인구유입은 당연한 결과로 나타날 것입니다.”

풍도와 육도는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 지? 풍도와 육도를 더욱더 알리고 관광 상품화 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인구 149명(풍도 107명, 육도 42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1월 1회 대부도와 풍도 육도를 오가던 정기여객선이 2025년 5월부터는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그리고 공휴일에는 1월 2회 운항되고 있습니다. 시정 및 동정 홍보사항은 주2회 통장님을 통해 전달하고 있으며 통장님과 어촌계장님, 노인회장님을 주축으로 주민들의 민원사항은 전달받고 있습니다. 특히 다양한 야생화로 사진작가들의 명소로

꼽힌터 풍도는 한여름 극성수기에도 고요하고 평화로운 섬캉스 및 백패킹의 명소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동 행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끌어 갈 생각인지?

“대부동장으로 부임하면서 직능단체나 주민분들에게 늘 말씀드리는데 ‘제가 근무하면서 대부동이 조금이라도 발전하고 나아졌으면 좋겠다’입니다. 앞으로 좀 더 주민과 현장 등 어디서나 소통하고 함께하는 따뜻한 행정으로 대부동이 지금보다는 살기 좋은 동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주민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먼저 언제나 동 행정복지센터 업무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조인을 해 주시는 주민분들과 대부도 여러 단체장님들·단체 회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민근 시장님이 대부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만큼 앞으로 대부도가 많은 발전이 될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다만 그 발전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없는 만큼 조금 더 지금이 아닌 미래적 관점에서 행정을 바라봐 주셨으면 합니다. 아울러, 내 것도 중요하지만 대부도와 안산시의 발전이라는 폭넓은 시각이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섬마을 선생님」 노래 배경지 [20회]

섬마을 선생님 노래비를 찾는 사람들(하)



晴境(청경) 金善喆(김선철)
전 대남초등학교 교장
현 안산문화관광해설사

지난호 계속 이미지 선생님의 3대 명곡 '섬마을 선생님' 노래비가 2020년 8월 20일 건립된 후 KBS, TV조선, OBS TV와 라디오, 신문 등 여러 언론에서 보도되었다. 특히 '섬마을 선생님' 노래 배경지 노래비를 Naver와 Daum, Google 등 인터넷 매체에서 검색하면 대부도 '섬마을 선생님 노래비'가 많이 검색된다.

Google AI는 「안산시 섬마을 선생님 노래비는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부도 대남초등학교 인근에 건립되었다. 이 노래비는 1965년 가수 이미자가 불러 크게 히트한 노래 '섬마을 선생님'의 배경지가 대부도라는 증언을 토대로, 2020년 8월 20일 섬마을 축제 추진 위원회에 의해 제작되었다. 노래비 위치는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남로 고랫부리 입구, 대남초등학교 인근 '고랫부리 입구' 버스정류장 앞에 위치한다. 배경은 '섬마을 선생님' 노래는 1965년 발표된 곡으로, 오랫동안 여러 섬을 배경지로 거

론해 왔다. 하지만 2020년, 안산시 대부도 주민들의 증언을 통해 대부도(대남초교)가 배경지라는 확신을 갖게 되면서 노래비 건립을 추진하게 되었다. 노래비 건립 및 의미와 건립 주체는 안산시 대남초등학교 총동문회와 지역 주민들이 주축이 되어 건립했다. 건립 시기는 2020년 8월 20일 제막식을 가졌다. 노래 가사는 “해당화 피고 지는 섬마을에 철새 따라 찾아온 총각 선생님”으로 시작하는 노래 가사와 함께, 대부도 지역의 섬마을 선생님 이야기를 기리고자 한다. 대부도 가볼만 한 곳 '섬마을 선생님' 노래 배경지/노래비로 소개」하고 있다.

네이버(map.naver.com)와 다음(map.kakao.com) 지도에서 섬마을 선생님 노래비를 검색하면 기념물/탑으로 거리부와 건물 주소인 경기 안산시 단원구 대부남동 대남로 319(대남초등학교 사택 주소)와 임야 학교용지 지번인 대부남동 284-5가 검색된다.

네이버TV 영상 그곳이 알고싶다 <섬마을 선생님> 배경지의 진실은? 4년 전, #섬트티비#그곳이알고싶다#섬마을선생님#1#2#3#4#개그맨#정성호#안산시#대부도, 등록일 2021.01.04. 당대 히트곡 이미자의 <섬마을 선생님> 노래 배경지를 찾아 나선 제작진, 과연 <섬마을 선생님> 노래가 탄생한 배경지는 과연 어디일까? 진실이 곧 밝혀집니다. 진행 : 정성호, 발주처 : 안산시, 강혜연 가수가 대부도 여러 곳을 돌며 직접 홍보



김미화 안산문화재단 대표이사



새로운 관광지로서 섬마을 선생님 배경지 대부도 홍보 강조.

물 배부, 양운영 안산시 관광협회장, 이갑성 대부도코뮤지엄 센터장과 조학민 주민, 최명애 해설사, 김용현 작가 증언, 김창수 경기도 관광전문대학원장은 이스타그램 등 활용 홍보, 안산문화재단 김미화 대표이사(제5대 재단 대표이사, 2020. 9. 1. 취임)는 「섬마을 선생님 배경지인 것에 놀랐다. 트롯이 요즈음 대세다. CD 홍보물과 어깨띠 제작 등 홍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유튜브 이시향TV의 섬마을 선생님 노래비 제막식, 대부도 색소폰 연주팀, 솔내음 연주, 섬마을 선생님, 이군희 섬마을 선생님 TV, 김광희 축제연구소, 2025. 2. 18. 등이 있다.

그 외에도 네이버 블로그 2021. 4. 21. <섬마을 선생님>의 배경지가 대부도인 증거를 찾아라!, 프로파일 그미/2023. 3. 29. #덕후감 명

카이트492 #더트롯쇼51번째출연 #섬마을선생님 23.3.27 조명섭 가수의 「조명섭은 섬마을 선생님 부르고 팬은 노래비 찾아 대부도로」, https://macgyver-dct.tistory.com 2021. 2. 4. 웹로 https://www.welfarehello.com hometownNews, https://coolnjjazzylife.tistory.com 2023. 7. 29. 교문2동 고인돌의 '트로트, 세월따라 사연따라' 여성소비자신문 http://www.wsobi.com news articleView 안산시 섬마을 선생님 노래비, 행복한 교육, 언론 보도는 TV 조선 뽕숭아 학당 2021년 7월 13일 헤럴드경제, KBS '동네 한바퀴' 이만기 2022년 9월 24일, 기호일보 아침을 여는 신문 섬마을 선생님 그리워한 소녀 '대부도,' 시사매거진, 오피언 등 노래비를 다녀간 사람이 너무나 많다.

데스크 칼럼

이상기후 속 '포도 없는 포도축제', 해법은 없을까



김태창
편집국장

가을의 문턱에서 열리는 '대부도 포도축제'는 매년 수많은 관광객과 지역 주민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대표적인 지역 행사다. 그러나 최근 몇 년 사이 축제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캠벨포도'가 사라지면서, 포도축제는 점점 '포도 없는 축제'로 전락할 위기에 처하고 있다.

올해도 어김없이 9월 19일부터 21일까지 대부도에서 포도축제가 열릴 예정이지만, 현장에 나올 포도는 대부분 사인머스캣일 것으로 보인다. 캠벨포도는 이미 8월 말이면 대부분 수확을 마치고 때문이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캠벨포도 수확 시기와 축제 일정이 절묘하게 맞아떨어졌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간 지속되고 있는 이상기후—특히 봄철 이상 고온 현상과 여름철 급격한 폭염—은 캠벨포도의 생육 시기를 앞당겼다. 당초 9월 초중순에 이르던 수확 시기가 8월 초중순으로 당겨지면서, 축제 기간에는 더 이상 신선한 캠벨포도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올해 역시 현장에서는 사인머스캣 중심의 판매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혹여 축제 기간 캠벨포도가 판매된다면, 이는 노지에서 수확해 저온 저장고에 보관한 뒤 가져온 것일 가능성이 높다. 이미지와 양이 많지 않아 축제를 찾는 방문객 모두에게 돌아가기 어렵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행사 일정을 수확 시기에 맞추어 8월

로 앞당기자니, 한창 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시기여서 야외 행사는 무리라는 우려가 따른다. 반대로 지금처럼 9월 중순에 열면, 캠벨포도는 이미 다 수확된 이후다. 포도 축제임에도 정작 포도가 없는 '반쪽 행사'가 반복되는 딜레마에 빠진 셈이다.

해결책은 있을까. 먼저, 행정과 농가, 지역 축제 관계자 간의 긴밀한 협의와 유연한 대응이 필요하다. 포도 수확 시기가 앞으로도 계속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축제 일정 자체의 전면 재검토가 불가피하다. 예를 들어, 실내 공간이나 나무 그늘 등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8월 중하순으로 축제 일정을 앞당기는 방안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물론 현재처럼 걷기축제와 마라톤을 함께 하는 축제가 계속된다면 8월로 축제를 앞당기는 것은 힘든 경우의 수다. 포도축제만 8월로 앞당기는 방법이 있긴 하지만 많은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다.

이와 함께 포도축제를 9월에 해야 하는 경우라면 축제 구성의 다변화가 필요하다. 포도 수확에만 초점을 맞추기보다, 포도를 활용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와인 만들기, 포도잼 클래스 등)이나, 지역 문화와 농산물을 함께 접할 수 있는 종합 농촌 체험 축제로 전환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 캠벨포도만이 아닌 대부도의 포도산업 전반을 조명하는 방향으로 시선을 넓힐 필요가 있다.

이상기후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문제는 변화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달려 있다. '포도 없는 포도축제'가 아니라, '변화에 적응한 지속 가능한 축제'로 거듭나야 할 때다. 과거의 성공에만 기대서는 안 된다. 농가의 손해도, 관광객의 실망도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이제는 축제의 본질을 다시 묻고, 새로운 해법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윤리적 저널리즘을 추구하는 언론

대부도저널

창간
2025년 4월 7일

주 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상동로97, 3층(대부북동)
대표전화 (032)880-9994 팩스 : (032)880-9961
홈페이지 www.daebudojournal.com
E-mail_ dj250407@naver.com
입금계좌 : 신한 131-022-633961(대부도저널주식회사)

회장 양운영 대표이사/발행인 윤성용 편집국장 김태창 광고국장 김선충

등록번호 경기 다50794

구독료 월10,000원 | 1부 3,000원(주간)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양지개발 토지컨설팅사무소

토목공사 / 건축공사 / 보강토 시공 /

토지개발/ 토지분양 / 컨설팅

대표 김 상 준 H. 010-9393-5783

안산시 단원구 대부남동 67-12(방조제길 113)

토지분양

“안개처럼 고요한 물가, 마음이 스며드는 쉼의 공간”

1. 대부도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 건폐율 인센티브 30% 적용
2. 펜션 단지 전체 도시가스 사용, 펜션단지 내 도로 8M 확정
3. 서해의 낙조가 가장 아름다운 바닷가 최고의 전망
4. 사계절 인기 만점, 대부도 최고의 수익형 부동산



감성과 수익이 흐르는 부지
대부도 말부흥 새로운 가능성의 시작

펜션부지 토지분양 말봉펜션타운 (옛 말봉바다낚시터 부지)

설계사무소 : 대부도측량설계사무소 시공사 : 양지개발

토지주 직접 분양 : (주) 말 봉 상담전화 032.886.1677 FAX 032.887.1677